



### 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

#### 사자빈신삼매의 경지와 체득

그때에 보현보살이 보살들을 위하여 방편을 써서 사자빈신삼매의 경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내용으로써 설명한다.

- (1) 모든 법계의 티끌속에 부처님과 그 국토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양
- (2) 허공과 같은 모든 불국토에서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여러의 공덕을 찬탄하는 모양
- (3) 모든 불국토에서 여래가 출현하여 한량없이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는 모양
- (4) 모든 불국토에서 여래가 설법하는 곳에 보살들이 모여있는 모양
- (5) 모든 달구멍에서 삼세 제불의 몸과 같은 변화한 몸을 나타내어 한순간의 마음에 법계를 가득 채우는 모양
- (6) 위신력에 의해 한 몸이 사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 가득하게 나타나는 모양
- (7) 모든 경계 가운데 삼세 제불의 신통변화를 나타내게 하는 모양
- (8) 모든 국토의 티끌 속에 삼세 제불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갖가지 신통변화를 한량없는 세월 동안 나타내는 모양
- (9) 모든 달구멍에서 삼세 제불의 큰 서원의 음성이 울리도록 해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이 출생하도록 하는 모양
- (10) 부처님의 사자좌의 크기는 법계와 같고 깨달음의 도량(菩提道

場)의 장엄은 보살들의 설법회와 같아서 차별이 없는데, 그러한 사자좌에서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여러 가지 미묘한 법륜을 굴리는 모양.

열가지의 설명을 통해서 우선 느끼게 되는 것은 일체의 세계가 서로 융통무애해서

공간적인 넓고(廣) 좁음(狹)의 세계가 그대로 융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원융무애한 사사무애(事事無礙)의 세계요, 일즉일체 일체즉일(一即一切一切即一)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한 가지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체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고, 일체의 시간과 장소에서 끊임없이 신통변화를 일으켜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며, 그 주위에는 항상 보살들이 모여 있는 점이다. 부처님은 항상 자비의 서원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실한 법을 설하여 보살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세계가 부처님 세계이고, 항상 자비로운 부처님의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아니, 그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과거나 미래의

### 차별속에 장애없이 통하는 세계

### 자비로운 삶에 대한 염원으로 충만

모든 세계가 그대로 하나의 진실한 세계 [眞法界]라고 하는 점이다. 물론 법계에는 한량없는 세계가 있어서 차별이 있지만, 다양한 차별이 있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장애 없이 서로 두루 널리 통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고 또한 그 세계이며,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그대로 보살들의 세계이기도 하다. 많고(多) 적음(少)의 세계, 크고(大) 작음(小)의 세계, 시간적인 길고(長) 짧음(短)의 세계와

어느 때가 아닌 지금, 환경적으로는 다른 곳이 아닌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이 몸을 가지고 부처님의 생명을 발휘하여 부처님 모습을 짓고 부처님 행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사자빈신삼매는 부처님의 마음[정신]의 경지이다. 그 경지는 일체의 진실을 밝히는 밝은 지혜의 경지이면서 또한 일체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자비의 경지이지만,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삼매는 대자비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삼는다. 그렇기에 대승정신을 선양하려고 하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보살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나아가야 할 부처님 깨달음의 마음의 경지를 이 삼매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자빈신삼매의 원어는 '사자가 포효하면서 기운뎃음'이라고 이름하는 삼매'인데, 이것은 오로지 일체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를 나타내는 정신 통일 의 경지이다. 어디에도 두려워하거나 구애됨이 없이 백수의 왕인 사자와 같이 용맹스럽게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성문의 전통에 구애되어 출가주의를 고집하여 현실세계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고요한 경계만을 좋아하고 진리연구에만 머무르면서 개인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자들을 일깨워서 세상을 구원하는 보살의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충만한 경지이다. 부처님이란 바로 이러한 염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실세계 속에서 자비의 생명을 실현하는 분이요, 이러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불교라고 하는 자각 아래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대승불교의 이념을 사자빈신삼매라고 하는 용어로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계품에서 '세존이 모든 보살들을 여래의 사자빈신삼매에 들어가게 하려고 미간백호로부터 큰 광명을 놓는다'고 한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사자빈신삼매를 느끼고 그것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를 단순히 지식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체득(體得)하게 하는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 강길전 교수의 불교와 의학

#### 태아도 스트레스 받는다

불교의 삼합(三合)의 원리와 12년 기법칙에 의해 태아도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뱃속 태아 역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사실이다. 태아에게 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 번 살펴보자. 다음은 최근 외국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발표한 내용들이다.

영국에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임신 직전 혹은 임신 4개월까지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3,500명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대조군 2만명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였다. 여기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란, 임신중 남편에 의한 학대, 또는 자녀가 암진단을 받았거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

지 않아 저체중아로 태어난다고 하였다.

WHO의 연구기금을 받고 실시한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 3개국 공동 연구 결과는 태아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 주고 있다. 즉, 원치 않는 임신으로 임신 내내 태아가 엄마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를 출생 후 25년까지 추적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고 태어난 아기는 △출생 시 저체중아가 많았고, △생후 1년까지 사망률이 높았으며, △뇌성마비 위험도 높았으며, △초등학교 성적이 떨어졌으며, △14세에 실시한 IQ가 평균 86 밖에 되지 않았고, △학교 성적이 저조하고 자퇴율이 높았으며, △병의 이환율이 높았고, △23세의 범죄율이 높았으며, △이성과의 관계가 파탄적이었

### 임신중 스트레스 기형 발생률 1.18%

### 산모의 슬픔 공포 분노 태아에 전달돼

떻게 하여 태어난 아기의 기형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임신중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에서는 태아기형의 발생률이 1.18%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그룹 0.65%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따라서 산모의 만성적인 슬픔, 공포 및 분노 등은 태아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 태아의 유전자 발현 시기와 기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평생동안 태아의 스트레스를 연구한 산부인과 의사 데이비드 칙에 의하면 임신중 태아가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이 2배에서 5배까지 증가,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하면 태아는 스스로 조산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했고, 만약 조산을 하지 않더라도 태아는 체중이 늘

고, △배배와 슬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

분만하는 도중의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것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친다. 난산을 경험하게 되면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정신분열증, 정신이상, 폭력, 범죄자가 되기 쉽다. 반대로 분만 당시 산모의 감정이 안정되고, 자신감이 넘치며, 아기의 탄생을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경우, 태아는 성인이 되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건강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임신중 태아가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니 따라서 산모는 임신중에도 태아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충남대 의대 산부인과학



그림 · 문병성



### 보조지들의 '간화결의론' ②

#### 저술동기-선교통합의 문제

보조지들이 <간화결의론>을 저술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먼저 저술의 제자인 혜심(慧心)의 견해가 있는데, 그는 저술이 입적한 5년이 지난 1215년 <원돈성불문(圓頓成佛論)>과 <간화결의론>을 상차에서 발견해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슬프다. 근래에 불법의 쇠퇴가 심하다. 선을 중으로 삼는 이는 교를 배척하고, 교를 숭상하는 이는 선을 비방한다. 선과 교는 서로 원수와 같이 견해를 지어서 법(法)과 의(義)가 서로 모순이 되어 다름만 일삼는다. 끝내는 하나의 실다운 도를 밟지 못한다. 이 점을 선사는 예석하게 생각하여 <원돈성불문>과 <간화결의론>을 저술하였다."

혜심의 이런 서평을 보면 13세기 초엽의 고려 불교계는 선과 교의 대립이 심각했음을 잘 보여준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 또한 선은 사물의

의미이고, 교는 펼쳐진 사물의 다양한 모습이다. 교가 있는 그곳엔 선이 존재하고, 선이 있으면 곧 그 자리에 교가 존재한다. 양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님에도 서로 비방하고 있는 현실을 통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혜심의 해석에 따르면,

### 해석하는 시대·사람 따라 차이

<간화결의론>은 선과 교의 대립을 통합하려는 의도에서 저술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저술동기에 관한 해석에서 현대 학자들의 의견과는 조금 다르다. <간화결의론>은 간화선의 입장에서 당시 강성했던 화엄교학을 비판하고, 왜 간화선이 요청되는지를 해명하는 저술이라고 보는가 하면, 혹은 <간화결의론>은 교외별전의 입장에서, 교보다는 선의 입장에서 저술되어

오히려 선교대립을 더욱 조장시키는 내용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간화결의론>은 결코 선교대립을 화해시키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 우위를 주장하는 논서이며, 선교 대립을 격화시키는 역사적인 단초를 제공한 저술로 평가한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는 매우 당혹스러우면서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선교의 대립문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선방에서는 교학적인 입장을 배척한지 오래며, 대학에서는 이론적이고 관료적 체계에 갇혀있다. 교학을 하는 이들은 선이 고원한

비판적인 수용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안이 된다. 그러나 <간화결의론>의 방향이 오히려 간화선을 중시하면서 교학의 도움이 있어 공장 선에 들어갈 수가 있고, 현실문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입장이라면, 교학의 산실로서 대학은 비판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간화결의론>은 어떤 입장에 서 있는가. 필자는 이 두 가지 경우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점은 텍스트 자체의 문제이기보다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문헌학은 텍스트 자체를 매우 중요시하고, 텍스트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어떤 사상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석학은 텍스트보다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사람의 권한을 더욱 중요시한다. 그래서 같은 텍스트라도 해석하는 시대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필자는 후자 입장에 서 있다. 과거의 텍스트는 반드시 현재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믿는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자체보다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해석자의 사회적 입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인경(禪상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 불자님, 이제 병고에서 벗어납시다!!

오랜세월 불보살님 가피를 입은 큰스님께서 세상에 한분 밖에 없는 초능력 힘을 지닌 불보살님으로 명명 받은 분께서, 병원에서조차 치유되지 않는 원인모름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병명**  
수증증, 와사풍, 중풍 (발병 6개월이내) 간질, 만성염염, 오장육부가 불편, 만성두통, 천식, 천도폐렴, 관절염, 만성피부질환, 정신질환 설사 및 어려운 병 등 (내방환영합니다)

※ 작명, 오행철학(五行哲學), 인생의 길 안내와 상담도 해드립니다

대구 팔공산 깃바위 뒷길 주차장 100m 전방  
감나무식당 아래 (선화정사)  
053)614-7935, 011-808-8880

###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치을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담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 직삼, 조끼, 바지 ₩160,000  
2. 동방, 바지 ₩160,000  
3. 두루막 ₩140,000  
4. ₩60,000

**누비**  
5. 직삼, 조끼, 바지 ₩320,000  
6. 동방, 바지 ₩320,000  
7. 두루막 ₩250,000  
8. 순면누비 ₩250,000  
9. 순면누비 ₩220,000  
10. 순면누비 ₩160,000

**잔누비**  
8. 셔츠 ₩50,000 (저어니얼, 라운드형) 바지 ₩60,000

※ 장삼, 기삼, 미방 및 기삼의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석대비내 3층 동부명주방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 팔공산(관봉) 약사암 대웅전 건립 대작불사 안내

귀의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기도 영험이 널리 알려진 약사성지 팔공산(관봉) 약사암에서는 석가여래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사 원만회향을 위해 3년째 1000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는 약사암 대웅전 건립불사에 불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수희 동참하시어 세계생생 이어질 복덕과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웅전 불사 동참 안내		
대들보 1,000만원	기둥 300만원	청통 300만원
황통 300만원	현판 300만원	주련 100만원
주춧돌 50만원	서가래 20만원	축대석 10만원
문(앞) 200만원		

**계좌번호**  
국민은행 616-01-0600-052      주택은행 810702-01-035169  
대구은행 200-08-007118-4      예금주 : 장영순

※ 시주금을 입금하신 불자님은 반드시 약사암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공산(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장영순 합장  
☎ 053)852-0803, 851-4632 / Fax 053)852-9453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번지